



윤석민

# 이젠 '행운'을 던진다

## KIA '비운의 에이스' 윤석민 팀 7연패 끊고 시즌 2승 쾌투 "올해 나홀로 고군분투 없다"

“비운의 에이스”에서 ‘럭키 가이로’...  
KIA타이거즈의 윤석민이 지난 16일 잠실에서 벌어진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팀의 7연패를 끊으며 시즌 2승을 챙겼다. 지난 5일 한화와의 경기 이후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던 팀은 7이닝동안 5피안타 4탈삼진으로 호투한 윤석민의 활약을 바탕으로 패배의 늪에서 벗어났다. 공교롭게도 지난 5일의 승리투수도 윤석민, 연패 후 첫 승리투수도 윤석민이다.

프로 4년차 윤석민은 150km가 넘는 빠른 직구와 140km를 넘나드는 날카로운 슬라이더가 일품인 명실상부한 KIA의 에이스다. 22살의 어린 투수답지 않은 배짱과 노련함은 자신의 이름앞에 ‘특급’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했다.

지난해 팀 타선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 팀이 최하위로 추락했을 때 윤석민은 나홀로 고군분투하며 팀을 지켰다. 윤석민은 지난해 방어율 3.78로 전체 12위,

탈삼진은 104개를 뽑아 9위에 랭크됐다. 하지만 이런 뛰어난 활약 속에 윤석민이 거둔 승수는 7승. 반면 18패로 2007년 최다패 주인공이 됐다. 덕분에 윤석민은 ‘비운의 에이스’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지난달 30일 윤석민은 삼성과의 2차전에 선발투수로 나섰다. 6이닝동안 2피안타 5사사구로 단 1실점을 했던 윤석민은 0-3 팀의 패배로 시즌 첫 등판에서 패전투수가 됐다. 또 다시 지난해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윤석민은 지난 5일 두 번째 등판인 한화이글스와의 경기에서 8이닝 5피안타 7탈삼진 3실점으로 ‘마수결이 승’을 챙기며 징크스를 벗어났다. 모처

를 터트리며 8점을 뽑아 윤석민의 승리 도우미를 자처했다.

세 번째 등판에서 5와 3분의 2이닝동안 막강 롯데 자이언츠의 타선을 상대로 7실점 하면 부진했던 윤석민은 16일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며 마운드를 굳게 지켰다.

4회 1득점 이후 타선이 좀처럼 기회를 살리지 못하자 윤석민은 7이닝동안 LG타선을 공포 묶으며 스스로 승리를 지켜냈다. 이번에는 폭발적인 타격으로 첫 승을 도왔던 타자들 대신 구원진들이 윤석민 승리투수 만들기에 동참했다. 유동훈-문현정-한기주는 깔끔하게 LG타선을 요리하며 1점차 승부를 지켰다.

팀의 연패를 끊는 승리는 프로 데뷔 이후 LG를 상대로 거둔 첫 승이기도 하다. 윤석민은 2006년 9월 14일 이후 LG전에 25번 등판해 6패만을 기록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팀을 구한 윤석민. 이제 팀이 윤석민을 비운의 에이스가 아닌 럭키 가이로 만들어 줄 차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팬들이 달라졌네 연패에도 비난보다 격려 릴레이

사직에서의 3연패로 KIA타이거즈가 최하위까지 내려앉은 지난 13일 팀 홈페이지에는 뜻밖의 릴레이 운동이 시작됐다.

“무등골 호랑이들이여 파이팅”이라는 이름의 응원 릴레이가 그것이다. 찬스마다 무기력했던 졸전을 지켜본 팬들은 실망감과 아쉬움을 비난이 아닌 응원으로 표현하면서 예전과 다른 성숙된 팬의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최하위로 시즌을 마감했던 KIA는 홈페이지 폐쇄사건까지 겪으며 흥역을 치렀다. 이 사건은 끝내 팬과 구단의 법적 싸움으로까지 비화되면서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KIA는 아직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거침없는 질주로 시범경기 1위를 차지했던 터라 팬들의 기대만큼 실망도 크다. 하지만 16일까지 250여명의 팬이 감독이나 특정 선수 퇴출 릴레이가 아닌, 응원 릴레이를 펼치며 선수를 기 살리기에 나섰다. 팬들은 또 비난과 욕설의 게시물이 올라오면 자제하자는 반응을 보이며 건전한 비판 문화를 위한 자정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박성화호 20일 '운명의 날'

## 올림픽 축구 본선 조 추첨

‘6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오른 한국 남자 축구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4년 전 아테네 대회 8강 진출을 재현할까’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의 명운을 가를 본선 조 추첨이 20일 오후 8시 베이징 리젠트호텔에서 열린다.

조 추첨에는 대륙별 예선을 통과한 한국과 개최국 중국, 지난 대회 챔피언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브라질(이상 남미), 이탈리아, 네덜란드, 세르비아, 벨기에(이상 유럽),

일본, 호주(이상 아시아),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이상 아프리카), 미국, 온두라스(이상 북중미), 뉴질랜드(오세아니아) 등 16개국이 참가한다.

4개 팀씩 4개조로 나눠 각조 1, 2위가 8강 토너먼트를 벌이기 때문에 ‘지옥의 조’를 피하느냐가 2회 연속 8강 진출에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988년 서울 대회부터 본선에 출전했지만 강호들과 같은 조에 속하면서 2000년 시드니 대회까지 5회 연속 조별리그 탈락의 쓴맛을 봤다. 다행히 2004년 아테네 대회 때는 그리스, 멕시코, 말리 등과 무난한 조 편성 덕에 8강행에 성공했다.



## 0.1초라도 더 빨리... 자신과 싸움

17일 울산문수수영장에서 열린 80회 동아수영대회에서 여고부 점영 200m에 출전한 최해라(17·서울체고)가 물살을 가르며 역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선대 박영식 해머던지기 '금' 주니어육상선수권



박영식(조선대 1년)이 제8회 한국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박영식은 17일 충남 당진종합경기장에서 열린 남자대학부 해머던지기에서 63m88cm를 던져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특히 박영식이 기록한 63m88cm는 지난 2002년 8월 4일 박대홍(한국체대)이 세운 대회신기록(61m50cm)을 6년만에 경신한 기록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상무 내일 휠체어 에스코트 받으며 입장

###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

프로축구 광주 상무의 선수단이 오는 1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 전북현대와의 6라운드 경기에서 휠체어 에스코트를 받으며 입장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상무프로축구단과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기념하고, 오는 10월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스코트에 나서는 장애우는 20~30대의 장애인 운동선수들로 총 22명이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

## 정지현·박은철·김정섭 '베이징행'

### 레슬링 올림픽대표 확정

한국 레슬링의 간판 정지현(삼성생명), 박은철(주택공사), 김정섭(삼성생명)이 2008 베이징올림픽 출진을 확정했다.

대한레슬링협회는 17일 아직 국가대표 최

종 선발진이 남아 있지만 그동안 국제대회 성적과 경쟁력을 감안해 이들 3명을 올림픽에 출전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지현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그레코로만형 60kg급 금메달리스트로 한동안 66kg급으로 체급을 올렸다가 원래 체급으로 복귀, 태릉선수촌에서 훈련을 해왔다. /연합뉴스



- 18일(금)  
▲2008 PGA 버라이즌 헤리티지 1R(04:00·SBS스포츠·SBS골프)  
▲2008 한국여자 프로골프 우리투자증권 클래식 1R(13:00·XSPORTS)  
▲프로야구(SK: 두산)(18:00·KBS N SPORTS)(롯데: 우리)(SBS스포츠)  
▲삼성하우젠 2008 K리그(전남: 부산)(19:00·KBS N SPORTS)

광주·전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독펠러 회원권**

저렴한 가격에 최상의 서비스로 회원권을 구매하세요. **모아레포트**를 무료 제공하며 라벨링합니다. 승주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고의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상담 문의 (062)351-0095

광주일보 창사 56주년을 축하합니다!!!

무한, 청정에너지 태양광 전남의 축복입니다.

무한에너지(주) · KC Cottrell

신신정보 (주)신신정보

합상 앞서가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신신정보 (주)신신정보 TEL: 062-777-7327